

민족사학 동산은 인간관계의 배움터

동산학원을 민족사학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는 신사참배, 황궁신민의 서사 외우기 등을 강요하고 교육령을 개정하여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창씨개명을 강제하면서 민족정신을 말살하던 시기로서, 일본당국에 의해 설립된 공립계 학교 또는 실업계 학교는 맥을 못 추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울목동에 위치한 무덕관에서 순수한 민족자본으로써 처음으로 인천에 문을 연 중등교육 시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없는 학교는 폐쇄하겠다는 일본의 명령이 있자, 선뜻 '학교를 세우고 민족혼을 찾는 것만이 겨레를 사랑하는 길인 줄 아셨노라. 이 일을 거울삼아 겨레의 횃불이 되려다.'라고 마음먹은 최승우 선생님께서 토지 28만여 평을 선뜻 기증하시어 오늘날의 사학의 명문 동산학원이 생겨난 것입니다. 최승우 선생님께서는 독립 투사에게는 독립 자금을 대 주시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을 주시는 방법으로 애국심과 민족애를 실천하셨습니다.

민족교육에의 소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신과 자주독립의 의지를 키워 주는 방법이 '교육'에 있다고 인식하셨습니다. 이에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재단법인 설립에 투입하여 식민지 조선의 교육입국과 민족자존의 기틀을 마련하시으로써 거룩한 민족애와 교육철학으로 인재를 양성하시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기에 자랑스러운 '민족사학'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운동가 최승우 선생님께서 세우신 인천 최초의 민족사학에서 특별한 인간관계, 즉 '나와 너의 관계'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협조하는 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여 능력 있다는 평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이철형
교장선생님

못하여 사회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작용적 관계에 있으므로 타인과의 관계 맺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자존감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필수요소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를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남은 인연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인간관계가 원만합니다. 학교는 특별한 인간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특히나 신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사학 동산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벗을 사귀는 장(場)입니다. 지성과 지혜를 일깨워 주시는 선생님과의 관계나 수년간 동문수학한 벗들은 마음의 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학창 시절에 사제의 정(情)이나 친구 간의 아름다운 우정은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며 학습 의욕에 영향을 미치고 정을 쌓음으로써 삶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친구는 끝없이 이어지는 우정을 통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친구란 말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친구 사귀기에 가장 좋은 학창 시절에 성실하고 서로 아끼며 도와주는 참된 친구 사귀기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의 성공에 미친 영향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뿐이었고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덕분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하는 성과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사람들과 진정으로 인간관계가 좋아야 능력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성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역시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소중한 인연의 만남으로 맺어진, 교직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인간관계입니다.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구성원들은 선생님은 권위와 존경의 대상으로, 학생은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사제 간에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구축한 두터운 신뢰와 따뜻한 정이 고리가 되어 교육이 행해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행복하고 활짝 피어나는 존재로서 서로의 관계가 돈독할 때, 선생님은 사기가 진작되고

학생은 생동감 있게 자랍니다.

교육공동체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합일 정신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특별한 인간관계의 배움터답게 선생님의 존경, 자긍심, 보람 등이 교단에서 살아나게 돈독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사제와 학우 간의 정의(情誼)가 깊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교육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중한 것입니다.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자신이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인간관계를 이루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좋은 인연도 서로 노력 없이는 오래갈 수 없고, 좋지 않은 인연도 서로 힘쓰면 좋은 인연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행복을 얻는 것이며, 사람을 잃는 것은 행복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 발전하는 관계로서 긍정 효과가 많이 나타나도록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며, 성공과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애국심과 민족애를 실천하는 신의와 신뢰의 장(場)인 동산에서 상대방을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절함을 베푸는 것 그리고 배려심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